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2020년 11월 1호

◆ 주요 동향

1. 자연자원부, 5대 '해양체계' 구축 예정
自然资源部官方确认正构建五大“海洋体系”
2. 왕홍(王宏) 자연자원부 부부장, 향후 해양업무 추진상황 소개
自然资源部副部长、国家海洋局局长王宏介绍海洋工作情况
3. 「2019년 남해구(南海区) 해양재해 공보」 발표
《2019年南海区海洋灾害公报》发布
4. 자연자원부, 해양정보산업 발전 추진방향 발표
自然资源部官方答复《关于推进海洋信息产业发展的提案》

* 본 주요 동향은 중국의 주요 언론기사를 번역한 내용임

◆ 기타 동향

5. 중국-프랑스 해양위성 2주년 안정 운영
中法海洋卫星稳定运行两周年
<https://mp.weixin.qq.com/s/fIH-FSypFYT73Nub2Gw6Q>
6. 2022년 광시 해양경제 총 생산액 4600억 위안 도달 예상
2022年, 广西向海经济生产总值达到4600亿元
<http://www.hellosea.net/News/11/2020-11-06/79252.html>
7. 「북극청서: 북극지역 발전보고(2019)」 발표
《北极蓝皮书：北极地区发展报告》(2019卷) 发布
<https://mp.weixin.qq.com/s/pxCY04XALujPOdfUBNBNSg>
8. 세계 최초 '해상풍력발전 학원' 광둥 양강(阳江)에서 설립
全球首家“海上风电学院”在广东阳江成立
<https://mp.weixin.qq.com/s/haZkdnl1mkP11-mkCpJldg>
9. 중국-국제해저지구 합동 훈련·연구센터 운영 개시
中国-国际海底管理局联合培训和研究中心启动
<http://www.nmdis.org.cn/c/2020-11-10/73160.shtml>
10. 중국 제37차 남극과학조사 실시
中国第37次南极科学考察队搭乘“雪龙2”号启程奔赴南极
https://mp.weixin.qq.com/s/RP_ZUNJTs1xml_xADI-a_A

작성자 : 진선선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kmishanghai@naver.com/+86-21-6090-0395)

자연자원부, 5대 '해양체계' 구축 예정

■ 최근 중국 농공 민주당이 제시한 “해양생태환경보호 전략체계 수립에 관한 제안”에서 지적인 육·해 통합 의식 결여, 산업구조 불합리 및 해양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자연자원부는 5대 ‘해양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육·해 통합 해양 계획 체계 구축

- 성급 국토공간계획의 편성 지도 : 2020년 1월 자연자원부가 발표한 「성급 국토공간계획 편성 지침(시행)」에 따라 연해지역의 성급 국토공간계획 편성 과정에서 육·해 통합을 강화하고 육역과 해역 기능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음
- 전국 국토공간계획 강요의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 육·해 환경자원의 수용력과 국토공간 개발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따라 생태보호의 레드라인 및 각 유형 해역의 보호선을 확정함
- 전국 연안 종합 보호·이용 계획 편성 : 연안 지리환경의 특징과 생태체계의 속성 분석에 따라 연안 육해공간의 기능을 분류함. 또한 연안 생태안전장벽 구축, 연안자원 절약 이용, 연안 이용 공간 구도배치, 생태체계에 기반한 연안 종합관리 실시 등으로 연안지역의 생태, 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함

■ 녹색·저탄소의 해양산업 체계 구축

- 불합리한 해양산업 분포로 인해 근해해역 오염, 해양자원 파괴 등 문제에 대해서 산업체계에 대한 상층설계를 추진함
- 현재 해양자원 개발·보호 제도의 상층설계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전국 해양경제발전 ‘14·5’ 계획」을 편성하고 있는데, ‘14·5’계획 시기 해양생태 보호·복원, 해양생태경제의 발전, 녹색·저탄소 해양산업 체계 구축의 방향, 목표, 임무와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생태안전의 해양생태보호 체계 구축

- 첫째, 해양 정돈·복원 사업을 지속적 추진. 2016년부터 자원자원부는 재정부와 함께 중앙재정 보조자금으로 28개 연해도시에서 ‘블루해만’ 정돈활동을 전개해왔으며, 파괴된 해안선, 연해습지와 도서를 복원시켰음
- 둘째, 해양생태복원 계획 제정. 「전국 중요 생태보호·복원 중대사업 전체계획(2021~2035)」에 의해 「연안 생태보호·복원 중대사업 건설계획(2021~2035)」을 편성하며, 향후 해양생태복원의 목표, 임무와 조치를 제시하고, 일련의 해양생태복원 사업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추진함
- 셋째, 연안 보호·복원 사업 추진. 산호초, 염전, 해초베드 등 중요한 연안 생태체계에 대한 현황조사와 생태파괴 평가를 진행하며, 연안 생태체계 조사평가, 생태체계 복원, 사업 감독·모니터링 등에 관한 기술표준 체계를 수립함

■ 완비한 법제를 갖춘 해양관리체계 구축

- 해양 자연자원과 환경정돈의 제도화 건설의 모색 : 해양자원보호 제도 보완. 기존의 법률법규, 규범문건과 정책문건을 기반으로 해양자원 보호 관련 법률법규의 개정·보완 작업을 추진함

- ‘해만책임자 제도(湾长制)’ 시범사업 추진 : 2017년부터 허베이(河北) 칭황다오(秦皇島), 산둥 자오저우완(胶州湾), 장쑤(江苏) 련윈강(连云港), 하이난(海南) 하이커우(海口)와 저장성(浙江省)에서 ‘해만책임자 제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음. 다음 단계에서 육·해 오염물의 배출, 해양 공간자원의 관리와 경관 정돈, 해양생태보호와 복원, 해양재해 리스크 예방, 법 집행 감독 등 면에서 ‘해만책임자 제도’의 건설을 추진하며, 「전국 ‘해만책임자 제도’ 시범사업 종합평가 보고」를 편성함

■ 혁신추진으로 해양기술 지원 체계 구축

- 해양입체 관측 네트워크 구축 : 중국 관할해역의 각종 해양환경 요소에 대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국가 글로벌 해양 입체 관측망에 대하여 위성, 레이더, 드론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관측분야를 확대할 예정임
- 해양분야의 중요한 과학기술 연구 추진 : 천연가스 수화물과 망간단괴 탐사개발 기술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계열화된 해양환경 조사·모니터링 기술장비의 R&D를 전개함. 이와 동시에 계열화될 해양관측 위성을 건조하고 해양위성의 지면 운영시스템 건설을 강화함
- 해수담수화 규모화 이용 및 도서 해양에너지 이용 시범사업 추진 : 해양관련 신약 개발을 지지하고, 해양 신약과 생물 제품의 기술혁신과 상업화를 추진함

(출처 : 自然资源部, 2020. 10. 30.)

<https://mp.weixin.qq.com/s/E7O8NiLnVHmpMARyVwUpQg>

왕홍(王宏) 자연자원부 부부장, 향후 해양업무 추진상황 소개

■ 지난 10월 30일에 개최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协, 정협으로 약칭)가 ‘해양자원 보호와 개발 조화롭게 추진’에 관한 협상회의에서 전문가들이 해양환경보호, 산업발전, 과학기술 혁신, 관리 체계, 국제협력 등에 관한 제안을 제시했음

- 회의에 참석한 왕홍 자연자원부 부부장은 해양업무 추진상황을 소개하면서 정협위원의 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도 하였음

■ 중요한 후속 추진 업무

- 해양생태체계 보호 및 복원 : 바다매립을 엄격히 통제하고, 과거 잔존된 매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 해양자연보호구역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조간대에 대한 전체 보호를 실시함. 해양생태복원을 추진하면서 해양생태 조기경보 능력을 제고하여 생태체계에 기반한 연안 종합관리를 실시함
- 해양자원에 대한 절약적 이용 추진 : 해안선에 대한 측정과 복원을 추진하고, 연안 건축 제한선(退缩线) 제도를 수립하여, 해역, 도서와 연안의 용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함
- 해양경제의 고품질 발전 추진 : ‘14·5’ 시기의 해양경제발전계획을 제정하고,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함. 특히 해수담수화와 해양에너지 이용을 추진하고 해상 실험장을 건설하도록 함. 또한, 해양 과학기술 혁신 사업을 지원하고, 심해 광산자원의 개발을 추진함. 그리고 해양산업 발전 펀드를 조성함
- 해양운명공동체 구축 추진 : 심해와 극지 탐사사업을 추진하고, 블루파트너 관계의 수립을 확대함. 이와 동시에 국제해양개발은행을 설립하고, 중국-유럽 해양산업단지를 건설하도록 함. 또한 해양 공공서비스 제품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정협위원 제안에 대한 대응

- ‘해양자원 조사 추진, 해양 종합정돈·보호 계획 제정’ 제안에 대하여 향후 ‘블루해만’, ‘남홍북류(南红北柳: 남방지역에 홍수림, 북방지역에서 버드나무 재배)’, ‘생태도서’ 등 해양생태체계 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함. 이와 동시에 연안 보호·복원 사업 계획을 편성하고, 모니터링과 감독 등 합동 메커니즘을 보완하게 됨
- ‘스마트 해양공정 촉진, 해양정보산업 발전’ 제안에 대해서는 국가 해양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활용으로 해양관련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함
- ‘해양에너지 규모화 이용 추진’ 제안에 대해, 중점 해역에서 파동에너지, 조류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양에너지 자원을 조사함. 또한 해양에너지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을 촉진하고, ‘14·5’ 시기 해양에너지 발전 행동계획을 편성하며, 해양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에 참여토록 함
- ‘해양공간 합리적 이용, 해양목장+ 모델 혁신’ 제안에 대해, 전국 국토공간계획 강요 및 전국 연안 종합 보호·이용 계획을 편성하는 동시에 다양한 해역이용 유형과 이용방식에 따라 관련 정책을 마련함

(출처 : 海洋知圈, 2020. 11. 9.)

<https://mp.weixin.qq.com/s/e4P2gLT1rJvaiojUIARk-w>

「2019년 남해구(南海区) 해양재해 공보」 발표

■ 최근 자연자원부 남해국(南海局)은 남해구의 폭풍, 파랑, 해일, 적조, 해수면 변화, 해안침식 등 재해의 상황을 담은 「2019년 남해구 해양재해 공보」를 발표하였음

- 공보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년~2019년) 해양재해의 평균상황에 비하여 2019년 남해구(범위: 광둥성, 광시자치구, 하이난성의 관할해역 및 연안)에서 해양재해로 인한 직접 경제손실 및 사망자(실종자 포함)수는 평균치보다 낮음

■ 광시자치구의 직접 경제손실 가장 심각

- 2019년 남해구에서 발생한 해양재해는 폭풍해일과 파랑 재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적조, 해안 침식, 염수침입 등의 재해도 다소 발생했음
- 각종 해양재해로 인한 직접 경제손실액은 약 2.4억 위안으로 2019년 중국 전국 해양재해로 인한 직접 경제손실(117.03억 위안)의 2.05%임
- 각종 해양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8명으로 전국 사망·실종자(22명) 수의 36.36% 차지했음
- 2019년 폭풍해일로 인한 직접 경제손실액은 2.37억 위안을 기록했고, 파랑재해로 인한 직접 경제손실은 0.03억 위안, 사망·실종자는 8명을 기록했음
- 2019년에 광둥성, 광시자치구와 하이난성의 해양재해 직접 경제손실액은 각각 0.03억 위안, 2.33억 위안, 0.04억 위안을 기록했음. 광시자치구의 직접 경제손실액은 전체의 97%를 차지하여 가장 심각한 손해를 입은 지역이 되었음

■ 폭풍해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 가장 많음

- 2019년에 남해구에서 발생된 각종 해양재해 중에 폭풍해일로 인한 직접 경제손실이 가장 심각하였음. 2019년 남해구 연해에서 폭풍해일은 2번 발생했는데, 사망·실종자가 없었지만, 직접적인 경제손실액은 2.37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남해구 전체 해양재해로 인한 직접 경제손실의 98.75% 차지했음. 그 중에 광둥성의 폭풍해일로 인한 직접 경제손실은 없었지만, 광시자치구와 하이난성은 각각 2.33억 위안, 0.04억 위안을 기록했음
- 이는 2018년(24.55억 위안)보다 낮은 것이며, 최근 5년(2014~2018)의 평균 손실액(49.7억 위안)보다도 많이 낮은 것임
- 전국 범위에서 보면 2019년 남해구의 폭풍해일 재해상황이 비교적 가벼운 것이며, 이로 인한 직접 경제손실액 전국 폭풍해일의 전년도 직접 경제손실(116.38억 위안)의 2.04%에 불과함

■ 파랑 재해로 인해 총 8명 사망·실종자 발생

- 2019년 남해구 해역에서 인명피해를 낳은 파랑 재해는 3번 발생했는데, 모두 광둥성에서 일어났음. 사망·실종자는 8명, 직접 경제손실액은 307.5만 위안이며, 이는 최근 5년(2014년~2018년)의 평균손실(146.4만 위안)보다 높은 것임

■ 다른 해양재해 피해 상황

- 2019년에 남해구에서는 해일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적조 재해는 총 3번 발생했고, 모두 광동성에서 일어난 것이며, 누적 면적은 12km²를 기록했다
- 해수면 변화에 있어, 2019년 남해 연해 해수면은 평년(1993~2011년의 평균 해수면)보다 77mm 높아졌고, 2018년보다 21mm 높아졌음. 2019년의 기준으로 향후 30년 동안 20~180m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观沧海, 2020. 11. 4.)

<https://mp.weixin.qq.com/s/QqPwaKgM9y5JVt3vDspAMA>

자연자원부, 해양정보산업 발전 추진방향 발표

- 최근 자연자원부는 허광순(何广顺) 중국 국가해양정보센터 센터장 겸 정협위원이 제시한 “해양정보산업 발전 추진에 관한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하였음
 - 해양정보 서비스, 해양정보 기술, 해양정보 설비 제조를 핵심으로 하는 해양정보산업이 급속 성장 추세와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음
 - 자연자원부는 해양정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계속 높아지고 있으므로 해양정보 산업에 대한 통합적 계획을 강화하는 것은 해양정보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음
- 중국의 해양정보산업 발전상황
 - 해양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일련의 규칙과 계획을 제시함.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5’계획 강요」에서 “스마트 해양산업 건설”을 제시했고, 해양경제발전 ‘13·5’ 계획에서는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을 해양산업과 심층적으로 융합시킨다”고 제시했음
 - 중대사업을 중심으로 해양정보 분야의 인프라 건설 추진해 왔음. 스마트 해양, 글로벌 해양 입체 관측망, ‘쉐룽(雪龙号)’ 극지탐사 등을 비롯한 중대사업을 추진해 왔음. 이를 위해 해양관측, 모니터링 등 설비의 개발을 강화했고, 해양위성 서비스 제품의 산업화를 추진해왔음. 또한 통신망 건설에 있어, 현재까지 랴오닝, 산둥, 하이난 등 지역의 주요 도에서 4G 네트워크가 모두 보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설된 해양목장에서도 기본 네트워크가 보급된 상황임
 - 신기술과 해양정보산업 간의 융합발전을 추진했음. 정보화와 공업화 간의 심층적 융합을 중심으로 해양경제 혁신발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해양생태환경 모니터링 공공서비스 플랫폼 등의 구축을 지지함. ‘13·5’시기 연해지역에서 ‘인터넷+해양’, ‘빅데이터+해양’ 등의 심층적 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스마트 해양시범사업과 스마트 항만을 건설했음
- 자연자원부는 다음 단계에서 관련 부문과 함께 아래와 같은 해양정보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해양정보산업에 대한 통합 조정을 강화 : 해양정보산업의 분류의 표준을 제정하고 해양정보산업 업계 표준체계를 수립함. 또한 해양정보산업 발전상황을 고려해서 ‘14·5’ 해양경제발전 계획에서 해양정보산업의 발전방향과 중점임무를 포함시킴
 - 해양정보 관련 인프라 건설 강화 : 연안해역에서 정밀화 관측 구도를 구축하고, 해양관측정보에 대한 실시간 수집과 전송능력을 향상시킴. 또한, 관련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해양정보산업 클러스터의 구축을 촉진함
 - 관련 설비의 자주적 혁신능력을 제고 : 핵심기술의 R&D를 강화하고, 해양정보 획득 능력을 향상시켜 고성능, 고품질 제품을 개발하도록 함
 - 해양정보 자원의 개발과 공유를 추진 : 해양정보 관련 플랫폼 구축과 공유, 측정된 해양지리정보 공유 등을 강화함
 - 해양정보와 다른 산업 간의 융합 : 산업 협력·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업체인에서 업스트림산업과 다운스트림산업 간의 협력을 추진함. 또한 정보기술 제품이 해양 각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이용을 가속화시킴

(출처 : 自然资源部, 2020. 11. 3.)

<http://www.hellosea.net/News/11/2020-11-03/79193.html>